

청소년기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학교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박 현 선* · 이 상 균**

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사회사업의 전문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평가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의 상시적인 연계구축의 일환으로서 학교 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School-based parent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서 진행중인 학생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구성된 프로그램의 현실적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실제 학교 장면에서 시범운영을 하였다. 이러한 시범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학교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I.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발달단계상 다양한 심리사회적 혼돈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예방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 사후개입보다 예방적 접근이 청소년 문제에 보다 효과적이다(Elias, 1997).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각급학교를 장으로 하는 예방사업들이 실시되어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len, Chinsky, Larcen, Lochman, Selinger, 1976; Comer, 1980).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일과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며, 학부모에 대한 접근도 그 어느 장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예방적 노력의 효과가 잘 유지되며, 일반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lias & Tobias, 1996).

학교사회사업에서도 부모참여와 같은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를 실천의 초석이라고 할 만큼 아동과 가족을 동시에 개입하는 것을 중시해왔다(Kurtz & Barth, 1989; 김연옥, 이상균, 1998). 부모와 학교가 협조하여 각각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학습능력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사실 새로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운 개념은 아니다. Epstein(1992)은 학교-부모 간 연계 및 협조의 필요성을 가정, 학교, 학생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논의했다. 첫째, 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태도, 과제, 성적 등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북돋운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참여는 양육기술과 같은 가족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셋째, 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라는 것이다. 즉, 부모가 학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양육과 관련된 원조를 받을수록 자녀의 교육과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인식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자녀들도 부모와 교사가 의사소통 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 생활에 관해 집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 즉, 학교와 가정의 연계는 학교 외의 장에서의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인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학습 및 사회화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에 기여하며, 부모-교사의 지지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청소년기 문제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Turner & Streat, 1983).

그러면 어떻게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활성화할 것인가? 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사회사업의 전문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미진한 상황이다. 물론 가정-학교 연계 중심의 실천 활동들은 소수 선구적인 학교사회사업 실천가들로부터 제안되고 수행되어 왔다(김상균외, 1998). 그러나 이들 모두 위기 상황의 가정을 중심으로 사후처방적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이며 전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서비스로서 가정-학교를 연계하는 예방적 접근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의 상시적인 연계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학교를 연계하는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대별되는 데, 학교에서 학부모를 위한 취미나 교양교실, 가정방문, 양육기술 증진 프로그램 등이다.

우선 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이나 영어회화 등 학부모들의 취미나 교양활동의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켜주는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기 문제예방이라는 본 연구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다(Swap, 1993).

또한 부모와 학교간의 관계형성이나 의사소통 혹은 가족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가정방문(Swap, 1993)을 하는 프로그램은 취업모나 저소득층의 가정과 같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가능성이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으로 아웃리치(outreach)하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구조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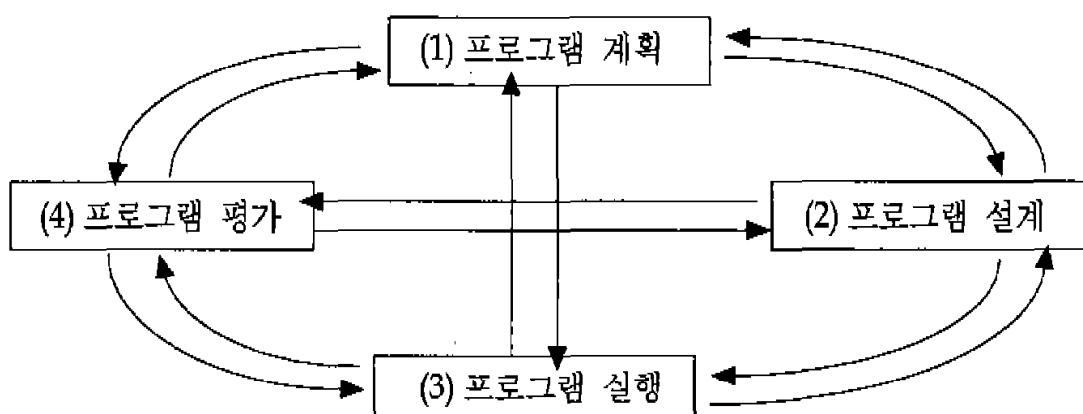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교 내 전문가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들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자녀 양육의 기술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의 프

로그램(Swap, 1993)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며 자녀를 위한 지역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Turner & Streat, 1983). 이와 같이 가정-학교 연계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강화를 통한 청소년기 문제예방에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입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태학적인 학교사회사업적 관점(Allen-Meares, 1986)에서도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기반의 부모교육은 가정-학교 연계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학교사회사업 역할의 주요 수단일 뿐아니라 전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학교사회사업 서비스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school-based parent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학교에서 수행하는 예방 활동의 내용과 원리를 부모들이 습득하여 평상시에도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개발과정에 자체에 초점이 있다. 물론 연구의 필요상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측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엄밀한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로 보고자 한 연구는 아니다¹⁾.



<그림 1> 프로그램 개발과정(권이종외, 1987)

1) 기존의 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의 상당수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산물의 효과성만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원리나 개발과정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함의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연구인지, 효과성 평가 연구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개발과정 자체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설계, 실시 및 평가가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모형에 기초하고 있다(권이종외, 1987). 즉, 학교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프로그램²⁾에 기초하여, (1)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기반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계획하고, (2) 이를 대상 학교의 현장 및 학부모에게 적절하도록 구체적인 활동으로 설계한 후에, (3)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고, (4) 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 계획 및 설계 방법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구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연계라는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목적과 목표에 기반하여 기존에 대상 학교에서 실시중인 문제예방을 위한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분석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학교정신건강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1998년의 3개년간 J중학교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다. 1996년 입학생을 무작위로 6개반씩으로 나누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3년간 각각의 6개반 내에서만 반편성을 하도록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유지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실험집단 6개반만을 대상으로 주1회씩 교과과정에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3개년에 걸쳐 수행 중이다. 학기별로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하되 전반적인 실천원리는 합리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학습에 기반하고 있다.

2. 실행 과정의 자료분석 방법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프로그램의 1997년 7월 21일-7월 26일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각 회기의 집단과정을 분석하였다. 집단과정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video와 audio를 이용한 녹화방법을 이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참가자의 반응을 기술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3. 평가 도구 및 방법

우선 운영평가를 위해 사후에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만족정도를 질문했다. 즉, 운영

2) 본 연구는 연구자가 3개년간 참여한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학교정신건강프로젝트로 수행된 자료 중 부모교육과 관련된 일부를 재분석하여, 구성한 것이다. 연구초기에는 학생용 프로그램과 교사용 워크샵만이 기획되어 이루어졌고, 부모대상 프로그램은 제외되었으나 2차년도에 가정과 학교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다. 학생용 프로그램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시형외(1996b)의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참조하라.

방법(인력, 시간, 일정, 진행방식)과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는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회기는 어떤 회기였는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산물(outcome)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후에 문제 해결 기술과 약물 및 흡연, 음주 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지식, 그리고 자녀 교육관을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평가도구에서 문제해결 기술과 청소년 문제의 지도와 개입 관한 지식부분은 최경옥(1997)의 연구에서, 그리고 가치관 부분은 이시형 외(1996a)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적은 사례 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와 성장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개월 뒤, 사후모임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도록 했다.

III.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계획 및 설계

1) 목적 설정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학교와 가정의 효과적인 연계와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하위목표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에서 (2)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관련된 목표라면, (3)에서 (5)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의 실천원리³⁾와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는 목표이다.

(1)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2)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를 정립한다.

-
- 3) 본 연구의 대상 학교에서 실시중인 청소년기 문제예방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주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런거스대 교수인 Elia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선행 프로그램 Social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Program(Elias, 1993; Elias & Clabby, 1989; Elias & Tobias, 1995)을 기초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Clabby 와 Elias(1986)는 청소년기 문제 예방을 위한 문제해결기술워크샵을 자녀 뿐 아니라 학부모를 위해 실시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문제해결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럴 때 자녀들은 실제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그러한 능력이 고취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강조는 본연구의 학교기반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인지행동주의적 원리에 동일하게 기반하고 있다.

- (3) 문제해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학습한다.
- (4)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원리인 문제해결기술의 효과적 지도 및 적용을 습득한다.
- (5)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약물, 음주, 흡연, 폭력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적용 및 지도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원칙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가정-학교의 연계라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자 학생 프로그램의 원리와 구성을 분석하여 학생프로그램과 부모프로그램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구성했다. 우선 학생프로그램은 예방프로그램으로서의 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의 필요성, 기본적인 대화기술, 문제해결기술, 폭력, 약물 등과 같은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기술 강화로 이루어져 있었다.

<표 1> 학생대상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공통원리

	학생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의 공통원리
제1차 년도 2학기	• 3개년간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와 내용 학습	• 학교-가정의 효과적 연계
		• 기존의 양육태도와 자녀 교육관 통찰 및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자녀교육관 탐색	•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의 기초마련
	<p><준비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열고 •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려면 • 친구 칭찬하기 • 마음을 가라앉히고 • B-E-S-T 기법 	• 부모-자녀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분위기 형성	• 사회성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습득
	<p><문제해결 5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로의 감정을 파악한다. ② 문제를 정의한다. ③ 해결책을 찾아본다. ④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한다. ⑤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단계의 적용과 연습 • 부모-자녀간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과정의 적용 	• 문제해결 기술 습득
제2차 년도 1학기	<p><폭력·약물 예방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제 현황에 대한 인식 제고 ② 문제해결 과정 적용 	• 청소년의 약물, 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자녀지도에 있어서 문제해결 과정 적용 연습	• 청소년기 문제(폭력, 약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제 해결기술 응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내용을 학습하고, 부모-자녀 간의 대화기술, 문제해결기술 습득, 청소년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기술의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기 부모를 위한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자녀교육관 탐색을 추가하였다. 두 프로그램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적 설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집단의 발달과정에 따라 초기단계, 중간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고, 회기별 목표와 개별 활동(activity)을 구체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회기의 활동 내용은 3시간 분량으로서 일반적으로 2회기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학부모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 회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매회기마다 활동 주제와 관련된 읽기자료를 과제로 포함시켰다.

<표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내용(I)

집단 과정	프로그램 제목 및 목표	내용과 진행방식
초기 단계	<p>1회기 : 마음을 열고....</p> <p>1. 자기소개 및 집단에 대한 기대를 공유한다.</p> <p>2.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 한다.</p> <p>3.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한다.</p> <p>☆ 읽을거리</p>	<p>1. 자기 소개 및 집단 참여 동기와 집단에 대한 기대 밝히기 개인적인 사항 및 집단 참여 동기, 기대, 현재 자녀의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 함으로써 청소년기 부모로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p> <p>2. 프로그램 소개 지난 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 및 슬라이드 시청을 통해서 3개년간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 전체 내용과 진행과정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 청소년기를 밝고 건강하게 (약물, 학교폭력) - 성문제, 진로문제 <p>3. 비디오 시청 및 토론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비디오 시청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와 특성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유명메이커 제품 선호경향의 원인과 이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한 글
	<p>2회기 : 나는 어떤 부모인가?</p> <p>1. 평소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스스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을 정립 한다.</p> <p>2. 평소자신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평가한다.</p> <p>☆ 읽을거리</p>	<p>1. 자기점검: 자녀교육관 회고 (1)</p> <p>자녀 교육관과 관련된 비디오 사례를 시청한 후 소집단 토론을 통해 평소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회고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어떠한 소신으로 자녀를 키우는가? - 자녀가 원하는 삶과 부모가 원하는 삶 <p>2. 자기점검 : 나와 내 배우자는 어떤 부모인가?</p> <p>평소 자신과 배우자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 태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아이를 너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건 아닌가? - 나는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부모인가? - 무조건 부모 마음대로 하는 독재형은 부모는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부모들의 출세지향적 교육관과 양육태도 대한 글

<표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내용(II)

제 목	프로그램 제목 및 목표	내용과 진행방식
	<p>3회기 :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 분위기를 위하여...</p> <p>1. 문제해결을 위한 분위기 형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화기술을 습득한다.</p> <p>☆ 읽을거리</p>	<p>1.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 형성 기술 i) 공감을 통해 자녀의 기분을 다룬다. ii)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수용한다. iii)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p> <p>◆ 대화기술의 활용과 어려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 역할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엄마의 답답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공감게하는 글</p>
중간단계	<p>4회기: 자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p> <p>1. 문제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p> <p>2. 부모-자녀간의 문제상황에서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습득한다.</p> <p>☆ 읽을거리</p>	<p>1. 문제 해결 단계의 적용과 연습 1단계: 서로의 감정을 파악한다. 2단계: 문제를 정의한다. 3단계: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본다. 4단계: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한다. 5단계: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p> <p>2. 비디오 시청 부모와 자녀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 지도의 단서들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p> <p>3. 문제해결 연습 - 비디오를 통한 피드백 성원들과 실제로 역할극을 해 보고, 이를 녹화한 비디오를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p> <p>◆ 청소년 문화이해(2) 연예인을 좋아 동분서주하는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 이에 대한 자녀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글</p>
	<p>5회기 :</p> <p>청소년 문제 예방과 지도 - 약물, 음주, 흡연, 폭력</p> <p>1. 청소년 문제(흡연, 약물, 학교폭력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p> <p>2. 자녀에게 음주, 흡연, 약물, 학교폭력의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학습한다.</p> <p>☆ 읽을거리</p>	<p>1. 비디오 시청 청소년의 약물, 흡연, 학교폭력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p> <p>2. 문제해결 연습 - 비디오를 통한 피드백 실제 자녀가 약물, 흡연, 음주,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겪을 때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습해본다.</p> <p>◆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약물이나 흡연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전화번호 소개</p>
종결단계	<p>6회기 :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평가한다.</p>	<p>1. 편지 쓰기 및 소집단 활동을 통한 평가</p>

2. 프로그램 실행

1) 대상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J 중학교 6개반 학생들의 학부모 중 자원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4> 프로그램 대상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상	연령	학력	가족관계	자녀성적	월평균소득(만원)	남편 직업
A	39	대졸	부부+아들(1)	91.73	150-199	공무원
B	39	대졸	부부+아들(2)	64.96	150-199	건축사
C	37	고졸	부부+아들(2)	89.62	250-299	엔지니어
D	43	대졸	부부+아들(2)	72.65	300 이상	은행간부
E	38	대졸	부부+아들(1)	87.65	200-249	사무직
F	42	대졸	부부+아들(1)	92.54	250-299	엔지니어
G	38	고졸	부부+아들(2)	72.81	250-299	사무직
H	40	고졸	부부+아들(2)+딸(1)	91.23	100-149	사회단체간부
I	49	고졸	부부+아들(2)	60.31	300 이상	엔지니어
J	40	고졸	부부+아들(2)	79.77	155-195	관리직
K	45	대졸	부부+아들(1)+딸(1)	75.5	300 이상	군인
L	39	대졸	부부+아들(1)+딸(1)	86.81	200-249	전문직
M	41	대졸	부부+아들(1)	73.35	300 이상	건축사
N	41	고졸	부부+아들(1)	62.12	150-199	공무원
O	39	대졸	부부+아들(2)	92.46	150-199	공무원
P	37	고졸	부부+아들(2)	75.96	150-199	중간관리직

학부모는 총 16명으로 시작해서 종결시에는 15명으로 종결했다. 결원 1명을 제외한 모든 학부모가 전체 회기에 참여했고, 대부분 전업주부이고, 두명이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었다.

2) 프로그램 일정 및 진행 방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학생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을 맡았던 사회복지사 3명이 참가하였다. 학교에서 실제 학생용 프로그램의 진행도 맡고 있는 2명의 사회복지사가 부모 교육에 있

어서도 직접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1명의 사회복지사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원자료수집과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계방학 기간 중에 매일 3시간씩 6일에 걸쳐 총 18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및 진행에 대한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모델링, 역할극, 소집단 토론, 비디오 시청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3) 실행과정 분석

실행과정 분석은 집단과정에서 발견된 수정·보완할 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첫 회기 (마음을 열고)

목표 : 1. 자기 소개 및 집단에 대한 기대를 공유한다.

2.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한다.

3.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한다.

①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도모- 도착하지 않은 성원을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중인 학생인성교육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본 프로그램의 일정과 진행방식을 소개하고 집단규칙을 확인하였다.

② 자기 소개 - 2인1조가 짹이 되어 서로 탐색의 시간을 가진 뒤 집단에게 짹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다소 어색하고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바뀌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성원들은 질문지침이 적혀있는 교재 내용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사 등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 받았다. 성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으며 자신만의 문제, 내자녀의 문제인줄만 알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문제들이라는 공통성을 발견함으로써 성원들이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동일한 학교의 학부모인데다가 자녀의 연령과 성별이 동일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였지만 서로에 대해 보다 많은 공유를 할 수 있었다.

③ 집단에 대한 기대 확인 - 성원들이 프로그램을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외동아

4)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자녀들의 예방 프로그램과 병행하거나 적어도 자녀들의 해당학기 프로그램에 선 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정-학교 연계라는 의미에서도 보다 이상적일 것이나 자녀들의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시작된 관계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욕구조사 결과나 학교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학기중에 자녀들의 프로그램과 동시적으로 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방학중 집중적 실시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이의 양육방법, 사춘기 자녀에 대한 대응방식, 자녀와의 대화 기술 습득, 부부간 양육태도나 교육관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해소 등이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표시하면서도, 학교내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본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및 취지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④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사회복지사가 바꿔고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를 시청하였고, 뒤이어 토론을 하였다.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청소년기의 특성이나 관심사는 주로 신체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정서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자녀들이 환경적으로 성적인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진 않을까 하는 점과 조기 성교육이 오히려 자녀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 성원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고민들이 자칫 과편적이고, 단편적인 나열로 그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는 성원간의 이야기에 대해 연결고리를 잘 이어가고 이를 잘 취합하여 자녀를 포함한 자신만의 고민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에 대해 이 시기의 청소년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문제들이라는 공통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성원들의 안도감과 위안을 얻게 하였고, 성원간 문제의 유사성과 동질감을 확보하게 집단의 유대강화를 촉진하였다.

(2) 둘째 회기 - 나는 어떤 부모인가

- 목표 : 1. 평소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자녀교육관을 정립한다.
2. 평소 자신의 양육태도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탐색한다.

① 자녀교육관 회고 - 자기점검 활동으로서 '나의 자녀교육관'을 탐색하기 위해 출세지향적 교육관과 자녀지향적 교육관을 비교한 비디오 사례를 시청하였는데, 사례의 내용이 현실의 자신들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원들은 큰 소리로 웃는 등 흥미를 보였다. 대부분의 성원은 학창시절만 고생하면 나머지 인생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출세지향적 내용의 교육관에 동의한다고 한 반면에 몇몇 성원이 청소년기라는 자녀의 발달단계상 억지로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옵으로써 바람직한 집단결론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② 양육태도 회고 - 맹종형, 간섭형, 독재형 세 가지 유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제시된 비디오 사례를 본 후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토론해 보았는데 전반적인 반응은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로 나오자 사회복지사는 이를 공감해주고 보다 많이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에 기반해서 논의하도록 유도했다.

③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의심이 많을 경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성원이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의심을 받았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독재형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녀가 소극적으로 자랄 것이라고 했으며, 실제로 아버지가 독재형인 경우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린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형인 경우 자녀들은 '주관이 없는 나약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각각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한 뒤 성원들은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보다 깊은 공감을 이루었다.

(3) 셋째 회기-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목표: 문제 해결의 분위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기술을 습득한다.

① 공감, 수용, 촉진적 반응기술 학습 - 부모가 자녀의 기분을 공감해주고 그러한 공감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흥미를 보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익숙하지 못해서인지 문장완성활동에서는 주로 엄마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인정하기보다 부모의 입장에서 설득, 설명하려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사례 하나를 점검하고 기존의 표현방식과 바람직한 방식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인식하고 점차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성원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수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차츰 엄마의 감정과 자녀의 감정을 구분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② 기존의 대화방법과 비교 토론- 전반적으로 스스로 대화 기술이 부족하여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자신이 어떻게 대화해 왔는지 잘 알 수 없었는데 역할극과 같이 참여위주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대화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성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한다라는 성원이 많았다. 단순한 기술습득보다도 기존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회고하고,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는 데 성원들이 보다 많은 의의를 부여했다. 사회복지사가 부모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말투나 행동방식을 우선적 수용해 주되,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모델링을 함으로써 성원들이 새로운 기술 습득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가 부진하고 소극적이었던 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적절했다. 인지행동적인 기술자체가 서구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역할극과 같은 훈련시 다소 어색하고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비디오 녹화를 통한 구체적인 지침제공과 참여위주 방식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았다. 또한 대화기술연습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했던 것도 다양한 반응과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4) 넷째회기- 자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 목표 : 1.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2. 부모-자녀 간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① 학교예방프로그램의 원리인 문제해결과정의 중요성 이해-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실천적 원리인 문제해결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을 비디오로 시청함으로써 부모교육과 자녀들의 프로그램과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②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과정 적용 연습-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사례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두 모둠으로 나누어 사례에 대한 소감이나 비슷한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후 문제 해결 5단계에 대해 각 단계별로 설명을 하였고 이후, 교재를 작성하면서 사례의 주인공인 자녀와 엄마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의 입장은 쉽게 공감하여 비교적 교재를 빨리 완성하였으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고심하는 표정을 지어보이는 성원이 많았다.

③ 기존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회고- 대부분 문제발생기 부모 스스로의 감정이 복받쳐오르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를 폭발적 또는 공격적으로 분출시킨다고 반응했다. 화를 내는 것과 엄마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를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엄마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되 자녀의 기분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것을 자세히 구분지어 설명했다. 특히 감정과 문제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높였다. 즉, 문제란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것으로 그 감정을 잘파악하고 다루어 주면 문제의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할극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교적 잘 전달되었음을 평가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진행방식이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강의나 내용전달 위주의 진행이 아니라 성원들의 참여와 연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매우 진지했으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5) 다섯째 회기- 청소년 약물남용 및 폭력 문제

- 목표 : 1. 청소년 문제(흡연, 음주, 약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2. 자녀에게 음주, 흡연, 약물, 학교폭력 문제를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개입지식과 방안을 학습한다.
- ①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논의- 지난 학기에 자녀들이 인성교육시간에 흡연과 음주

문제를 다루는 장면을 비디오로 시청하였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흡연이나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정도나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감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보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내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자녀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 흡연에 비해 음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였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녀를 다그치기 보다는 자녀가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음을 이해하여 자녀가 대화를 합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성원의 경우 다른 성원이 이야기하는 대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특히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효과가 컸다. 성원 스스로가 자신이 문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나머지 성원들도 과정을 자세하게 지켜보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었다. 평소 부모의 화나고 분한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돌이켜 보고 그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문제상황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는 변화를 보였으며 이 부분에서 성원들이 기존에 자신이 대처했던 방식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②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이해 - 성원들이 약물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특히 내 자녀의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약물 남용 기제가 음주나 흡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하도록 격려하고, 이러한 문제가 단지 소수 비행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③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 학교 폭력에 대한 간단한 언급후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룬 비디오인 「푸른 교실을 꿈꾸며」를 시청했다. 이어 비디오 내용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폭력 대처에 관한 행동 지침을 소개하였다. 성원들은 흡연이나 약물, 음주 문제 보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폭력의 범위 즉,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논의의 후반부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꺼려하고 힘들어 한다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광의의 폭력정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④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지도 방법 논의- 실제 자녀가 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 대해 걱정하고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존 지도방식으로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대처 즉, 그 자리를 피하고, 무조건 다 주고 와라는 식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디오 시청을 통해 자녀가 폭력을 당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과 폭력을 당한 자녀가 갖는 심리적 반응, 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논의가 상당히 추상적인데 그치는 듯 했으나 두명의 성원이 실제 경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입장에서 구체화 될 수 있었다.

(6) 여섯째 시간 -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회고

목표 :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평가한다.

① 편지쓰기와 다과회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녀에게 편지쓰기를 한후 자유로운 담론 형태로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했다. 편지의 내용은 주로 자녀들이 그동안 받아온 학교의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평가는 프로그램 구조나 진행방식에 대한 언급보다는 인상 깊었던 체험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체험은 주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고, 생소했다라는 언급이 많았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경험 면에서 부모들이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현실감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참여위주로 이루어져서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한 기존에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문제 의식을 공유할 만한 적절한 장이 없었던데 반하여 이번 학부모 워크샵이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② 자조집단 결성 및 사후관리 회기에 대한 논의 - 공식적인 평가가 끝난 이후에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자조집단이 형성되었다. 자발적인 회장과 총무 선출이 이루어지고, 매달 첫째 월요일에 모인다는 의미로 '일월회'라는 모임 이름도 결정되었다. 종결단계에까지 집단에 대한 매력이나 응집력이 매우 높았으며, 성원들 스스로가 이러한 에너지를 이후의 자조집단이라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뒤에 자조집단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사후관리(follow-up)회기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러한 실행과정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부모교육과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가정-학교를 연계하는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원리를 집단의 초기과정에서 뿐 아니라 집단 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자녀들의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나 발표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모들이 처한 공통의 기반, 예컨대, 자녀의 동일한 연령, 성별, 학교 등을 통해 공감대와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를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러한 강조는 이후의 자발적인 자조집단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문제들간의 상호연관성, 예컨대, 흡연, 음주, 약물, 폭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며 더 이상 소수 비행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소극적 방치가 아닌 적극적 대처의 중요성과 방법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녹화나 역할극, 소집단 토론, 비디오 상영 등 집단 성원의 다양한 참여 유도기제를 프로그램 곳곳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이러한 함의는 이후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보완시 반영되었다.

4. 프로그램 평가

1)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여성원에게 얼마나 유익했지를 묻는 질문에 93.7%가 매우 유익했다라고 대답하였고,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했다.

학부모 워크샵이 유익하거나 혹은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부모가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부모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로서는 1) 유사한 고민을 가진 부모로서 공감대를 느끼고, 2) 대화기술 및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3) 청소년기의 문제와 같은 그 동안 미처 알지 못했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응이 주로 나왔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했던 성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유익했다고 평가한 세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2.4%가 자녀와의 대화기술과 양육기술의 습득에 관한 회기인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에 응답하였고, 18.8%가 부모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대해 스스로 통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응답하였다.

학부모 워크샵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고자 노력하면서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려고 한다.”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려고 했으며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면서 공감하려 한다.”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면서 엄마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을 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해보고서 말을 한다.”

“흡연과 음주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와 같이 이야기하고 예방차원에서 나쁜 점을 이야기해주었다.”

<표 5>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문 항	만 족 정 도	빈 도
프로그램의 유익성	유익하다 무응답	15 (93.7) 1 (6.3)
자녀지도에의 도움정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되었다 무응답	14 (87.4) 1 (6.3) 1 (6.3)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정도	매우 흥미 있었다. 흥미있었다. 무응답	13 (81.2) 2 (12.5) 1 (6.3)
가장 흥미로운 회기	부모로서 자기성찰 및 탐색 대화분위기 형성	3 (18.8) 10 (62.4)
인원의 적절성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무응답	12 (74.9) 3 (18.8) 1 (6.3)
시간과 일정의 적절성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무응답	11 (68.7) 3 (25.0) 1 (6.3)
진행방식의 적절성	적절했다. 무응답	15 (93.7) 1 (6.3)

이와 같이 활용 사례가 의사소통 방법과 기술, 청소년기의 문제 예방과 관련해 다양하게 나온으로써 애초의 상정했던 목표가 비교적 적절하게 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8.8%가 인원의 부적절성을, 25.0%가 시간과 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인원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 집단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토론 시간과 역할극 및 배운 기술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 부족했음을 들었다.

또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배우고, 배운 것을 연습하기에는 시간이 짧다는 면에서 시간과 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1일 한 회기당 시간의 부적절성 보다는 전체 일정이 짧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워크샵이 집중적으로 1주일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기간 간격이 전혀 없어서 성원에게 충분히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토론이나 역할극 등의 참여 위주의 진행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 무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성원이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영역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영역은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지식의 증가이다. 즉, 학교 폭력이나 약물, 흡연, 음주 등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지식은 개입전과 비교하여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상정했던 학교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일차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프로그램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은 사후에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질적인 과정분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개입전 사전조사에서 막연한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시했던 반면에 개입후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통찰이 생김에 따라 오히려 주관적 평가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직후에 오히려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성장기간을 가진 다음에 사후 추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쟁제일 가치관은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프로그램을 통한 가치관, 문제해결기술, 개입지식의 변화정도

		평균순위	순위총합	감소순위	증가순위	동일순위	z
경쟁제일 가치관	사전	4.33	13.0	6	3	5	-1.1406
	사후	5.33	32.0				
문제해결 기술	사전	7.13	28.5	8	4	3	-.8424
	사후	6.20	49.5				
청소년 문제관련 개입지식	사전	3.50	3.50	1	11	3	-2.8457**
	사후	6.78	74.5				

** p< .01

요컨대,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부모들의 가치관이나 문제해결 기술의 향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1주일이라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관이나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의 변화는 추후관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점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부모교육에 참여한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조집단을 결성한 점에서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사전사후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자녀와 무관하거나 경시했던 문제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방교육의 1차적 목표인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잠재적 위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했던 바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사후 모임을 통한 평가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조집단이 9월 1일 처음으로 학교 근처 식당에서 최초의 사후 모임을 가졌는데 총 15명 중에서 14명 모여 높은 출석률을 보여 성원들이 집단에 대해 갖는 매력과 응집력을 알 수 있다. 논의는 주로 학부모 워크샵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앞으로 이 집단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학부모 워크샵의 영향으로 자녀에게 “공부 좀 하라”는 말을 덜하려고 노력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바로 방학 기간이어서 자녀들과 있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었지만 스스로 동기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다.

“예전 같으면 다음 학기 공부를 미리 다 시켜서 보내느라고 학원도 보내고, 불들어 앉혀 놓고 시키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 워크샵을 한 뒤로 그래서는 안되겠다라구요. 일부러 꼭 참고 스스로 해보라고 권해 봤어요. 애도 어리둥절 하더라구요. ‘엄마 사기치는 것 아냐? 아니면 어디 아파?’ 하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여름 방학 내내 놀더라구요. ‘방학숙제는 하고 노는 거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한 번만이라도 아이에게 스스로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던 다른 엄마 말들이 생각나서 참았지요. 방학이 끝나가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지 난리가 났더라구요. 이리저리 친구집에 전화도 하고, 책도 사오고, 나름대로 분주하게 개학준비를 하던데... 그냥 두니까 하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신기했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번 성적은 어찌 나올런지... 오르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이 방법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학부모 워크샵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부분의 성원이 동의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것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평가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내 교육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학교 기반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서 진행중인 학생 대상의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합시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구성된 프로그램의 현실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학교 장면에서 시범운영을 하였다. 시범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학교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 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구체적인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개입지식의 증가라는 가시화된 단기 산물 외에도 가정-학교의 예방활동 연계라는 보다 궁

극적인 기여를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원리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지식을 가정에서 구체적인 자녀교육에 적용, 활용함으로써 양육 기술의 증진과,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측면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가정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고, 사후에 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집단이 조직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창출되었던 것도 매우 의미있었던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학교연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고리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위치지워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첫째, 학교라는 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통점의 결집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과정에 참여한 부모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학교, 동일한 발달단계, 동일한 지역사회라는 공통의 기반은 성원간의 공감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었고, 이는 집단과정에서 안전한 지지망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 이후 성원들이 자조집단이라는 자원으로 재창출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를 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학교라는 장을 통해 부모들이 학교내 청소년의 문제예방에 대해서 능동적인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대상의 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성이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시, 학생대상의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여 양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한 부모들과 자녀간에는 또다른 의사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대상 프로그램의 연계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학교에서 접한 대처양식과 조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문제예방에 관한 한 학교와 가정이 일관적인 대응방식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는 예방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다양한 실천적 산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발과정에 초점을 두었기에 다분히 질적인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정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학부모 교육을 받음으로써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지식은 증가되었지만 이런 지식의 증가가 실제 자녀들의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정신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프로그램의 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의 단기성은 성원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시 참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일정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신건강, 부모-자녀 관계, 학교와 가정의 연계에 대한 장기적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권이종 외. 198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상균, 김연옥, 오정수, 노혜련, 김기환. 1998. 학생비행예방 및 선도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연옥, 이상균. 1998. “가정-학교-지역사회 원조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전략 개발”. 한국아동복지학. 6호. pp.9-39.
- 문선모. 1976. “학교 적응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 1996a.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이시형, 정현희, 김은정, 이세용, 박현선. 1996b.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삼성생명 사회정신 건강 연구소.
- 최경옥. 1997. “학교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집단 활동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lias, M.J. 1997. “사회적, 학업적, 성공과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청소년 인성교육의 실제.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pp. 53-84.

〈국외문헌〉

- Allen, G. J., J. M. Chinsky, S. W. Larcen, J. E. Lochman & H. V. Selinger. 1980. *Community psychology and the school:A behaviorally oriented multilevel preventive approa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labby, J. F. & M. J. Elias. 1986. *Teach your child decision making*. New York: Doubleday.
- Comer, J. P. 1980. *School power*. New York: Free press.
- Constable, R. & H. Walberg. 1988. "School social work: Facilitation home school partnerships in the 1990s." *Urban Education*. 22(4).
- Doherty, W. J. & R. Ryder. 198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PET): Criticism and cavea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6. pp. 409-419.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Elias, M. J. & S. E. Tobias. 1996. *Social Problem Solving: Interventions in the schools.* N.Y.: Guilford Press.
- Epstein, J. L. & L. J. Connors. 1992. "School and Family Partnerships." *The Practitioner.* 18(3). pp. 1-8.
- Epstein, J. L. & L. J. Connors. 1994. "High schools gear up to create effective school and family partnerships." *Center on Families, Communities, school & Children's Learning.* 5. June. pp. 1-4.
- Epstein, J. L. 1993. "Summaries of Teachers Involve Parents in Schoolwork(TIPS) Process." in *The School Community Cookbook: Recipes for Successful Projects in Schools.* edited by C. Hyman. Baltimore: Funds for Education. pp. 159-167.
- Fine, M. J. 1980.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London: Academic Press, Inc.
- Garbarino, J. 1992. *Children in danger: Coping with the consequences of community viol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Goldstein, A. P. & J. C. Conoley. 1997. *School-Based Protective Mechanisms.* New York: Guilford Press.
- Kurtz, P. D. & R. P. Barth. 1989. "Parent involvement:cornerstone of schoo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4. pp. 407-413.
- Swap, S. M. 1993. *Developing Home-school Partnerships: from concepts to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urner F. J. & H. S. Strean. 1983. *The Practice of Social work in School.*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Developmental Research on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Home-School Collaboration.

Park, Hyun Sun · Lee, Sang Gyun

Although experts have called for increased collaboration between families and school systems, the actual programs for such efforts were not introduced. Thus,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school-based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home-school collaboration.

PEP was developed through the circular process, which consist of planning, design, enactment, and evaluation. The group process of PEP was analyzed qualitatively and the effectiveness of outcomes was examined by nonparametric statistical analysis.

Two factors contributed to success of PEP were as follows:

- 1) Increased homogenities, such as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 same school enrollment, and sense of community belongingness.
- 2) Consistency and continuity between PEP and Mental Health Prevention Program for students.

Through the PEP based on these factors, parents' strong commitment was established and tangible results such as increased knowledge and fluent coping skills regarding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were found.

Implications for home-school collaboration were explored, as are recommendations for how PEP can be prepared to link between families and schools.

Tel : 0652-270-2799

Fax : 0652-270-2985

E-mail : sunny@moak.chonbuk.ac.kr.